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통일애 국경률이 어려있는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한생을 작가로 살아온 저의 아버지 조령 출입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에서 살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 아버지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려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고 사후에는 조국통일상수상자라는 값높은 칭호도 안겨주시었습니다.

첫 조국통일상수상자들이 나온 때로부터 21돐이 되는 날을 맞으며 저는 아버지와 우리 가정에 돌려주신 절세위인들의 한없이 뛰어운 사랑과 밀음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의 일상을 새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 \*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체 82(1993)년 2월 어느 날의 일입니다. 이날 아버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크나큰 행운을 지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보고싶었다고, 오랜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식사도 하고 싶었다고 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오랜 작가, 예술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단란한 한식구처럼 원탁에 둘러앉히시고 이야기도 나누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에 넘쳐 자기가 지은 천국에 대한 명절을 읊어드렸을 때 수령님께서는 치하해주시며 그 시를 두고가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가슴한가득 안겨주시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아버지는 감격과 홍분을 진정하지 못하며 우리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식들과 후대들을 잘 키워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라고 하신 귀중한 말씀을 전달해주었습니다.

며칠후 영화예술인들이 준비한 경희극을 보아주시려고 만수대예술극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시여 다정히 손을 잡아주시며 축하합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물가끼이 뵈온 것만도 분에 담는지에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축하의 인사까지 받은 아버지는 너무도 감격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라없던 세월 아버지의 삶은 비참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에서 가난한 집안의 3대 외독자로 태어난 아버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 나날 나라없는 민족의 슬픔을 빼앗기게 체험한 아버지는 수

# 민족의 자랑으로 내세워주신 크나큰 은정

난받는 겨레의 피라는 부르짖음과도 같은 노래들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고향설』, 『진주라 천리길』, 『외로운 가로등』, 『연자방아』, 『울어라 문풍지』, 『코스모스란식』, 『울며 혜진 부산경』…

고심어린 노력으로 지은 가사들이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내지 못하고 리가실, 조명암과 같은 가명으로 발표한 것이 많았습니다. 일제는 아버지가 망국의 설음을 한탄하여 지은 비가마저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가사들은 노래가 되어 소리판으로 나오자마자 모조리 암수당하고 소각되어버렸습니다.

민족수난의 그 시절 틀을 묻은 고향을 떠나 찬비내리는 이국의 거리를 방황하면서 가슴에 서린 문을 도해낸 가요 『집없는 천사』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자신이었습니다. 민족적 모멸과 빙궁과 병고로 시달리면서 살아 무엇 하랴 하는 생각에 아버지는 일본에서 고학할 당시 21살 젊은 나이에 『유언서』라는 시를 남기고 죽으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에게 광명의 날은 왔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으신 것입니다. 민족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흠토와 매우 환희에 넘친 아버지는 매일 서울역에 나가 김일성장군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죽지법을 쓰며 일제의 맥반동군을 퀴락 퀴락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로 꽂을 페우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가들은 이야기에 기초하여 희곡본을 써나갔습니다. 한 막의 원고가 떨어지기 바쁘게 당시 신인배우였던 김세영이 날마다 주막에 막을 페우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주 창조과정을 이해하시고 창조단이 고심하는 문제들을 순간에 페뚫어보시면서 명철하게 바로잡아주고 하였습니다. 가족의 노래는 첫째로 선율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명곡이라 된다고 하시며 가사를 들을 때마다 문학예술분야에 능통하여 그 어떤 공적을 남겼다는 평은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버지에게 혁명가곡 『금강산의 노래』를 창조함에 대한 과업을 맡겨주시었을 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가 과연 이 작품을 그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창조할 수 있을가 하는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후날 아버지는 그때의 심정을 걸을마를 빤 아기가 황소고삐를 훤히였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주 창조과정을 이해하시고 창조단이 고심하는 문제들을 순간에 페뚫어보시면서 명철하게 바로잡아주고 하였습니다. 가족의 노래는 첫째로 선율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명곡이라 된다고 하였습니다. 순천, 려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의 많은 지역에서 순회공연이 진행되었는데 풍물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희곡에서나마 수령님을 빼고 옆광하는 남녘겨레의 모습에서 아버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온민족의 끓어넘치는 신뢰를 가슴뜨겁게 느꼈습니다.

가자 북으로, 민족의 태양을 따르리라.

## 민족 자주의 선언, 민족 대단결의 선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 97(2008)년 9월 5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민주주의 민족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라며 밝혀주시었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실현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며 어느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힘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거족적 위업입니다. 그런 것 만큼 나라의 통일문제는 마땅히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민족의 대단결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으로서의 북남공동선언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을 이루기 위한 리념적 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를 명시한 북남관계발전의 조석이며 조국통일의 특대형도발

일본의 독도침략저지와 과거청산촉구를 위한 공동학술토론회 진행

위원회 그리고 범민련과 범청학련부본부 성원들, 사회과학, 교육,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6.15공동선언실천실천 해외축원회에서 보내온 련대사가 랑독되었습니다.

현대사는 조선의 령도와 주권을 수호하는 문제는 전 민족적 파업으로 된다고 하면서 일본의 재침책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범민련과 범청학련부본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리종혁, 조선일본문제부문부본부장이 일본의 독도침략저지도를 규탄하였으며 일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이 련대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리종혁, 조선일본문제부문부본부장이 일본의 독도침략저지도를 규탄하였으며 일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이 련대할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일제의 성도에 범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녀성들이 당한 치욕의

주체 37(1948)년 9월 아버지는 드디어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습니다.

신홍의 기상이 약동하는 공화국의 벅찬 현실은 아버지에게 그대로 창작의 열정이 샘솟게 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버지가 민족가곡 『콩쥐팥쥐』, 『선헌』, 『금강산팔선녀』, 『배뱅이』와 가곡 『바다의 처녀들』과 같은 작품들을 내놓을 때마다 공연을 몸소 보아주시고 우리 민족가곡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아버지는 『압록강 2천리』, 『열록소아 어서 가지』, 『조국보위의 노래』, 『조국산천에 해동실 떠온다』, 『모란봉』, 음악무용극 『밝은 태양아래』를 비롯하여 『침청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이 진할세라 작품을 끌까지 완성하도록 떠밀어주시었습니다.

하기에 아버지는 자기의 수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재능있고 저명한 작가, 시인이라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세상에 빛을 뿐될수 있는 것이다.

지난 시기 정치지도자들의 업적을 말할 때 그들이 문학예술분야에 능통하여 그 어떤 공적을 남겼다는 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희생의 정체가 아시고 위대한 령장이 신학월한 령도자로서 참으로 경란하리만큼 문학예술에 해박하시고 주위세계의 사물현상을 예술적으로 파악하는 풍부한 미의식과 예술적인 천품을 지니고 계신다.

내가 고령의 몸임에도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가사를 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놓으신 문학예술의 거장이 신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때의 심정을 걸을마를 빤 아기가 황소고삐를 훤히였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주 창조과정을 이해하시고 창조단이 고심하는 문제들을 순간에 페뚫어보시면서 명철하게 바로잡아주고 하였습니다. 가족의 노래는 첫째로 선율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명곡이라 된다고 하였습니다. 순천, 려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의 많은 지역에서 순회공연이 진행되었는데 풍물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희곡에서나마 수령님을 빼고 옆광하는 남녘겨레의 모습에서 아버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온민족의 끓어넘치는 신뢰를 가슴뜨겁게 느꼈습니다.

가자 북으로, 민족의 태양을 따르리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창작했던 음악무용극 『밝은 태양아래』를 가지고 혁명가곡 『밝은 태양아래에서』를 만들 때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시었던 때를 회고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시었던 때를 회고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지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지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지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지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지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지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지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지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자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자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자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자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자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자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0년 대말에 우리식 민족가곡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는 민족가곡 『춘향전』을 창작하도록 세심한지도를 주시면서도, 1990년대 초에 민족가곡 『침청전』 창작과제를 맡겨주시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힘을 줄여주시고 하면서 아버자를 잘 고려해 주었다고 하시며 가족의 기본노래로 선정해주시였습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통일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진행하였다. 개각은 보수당국이 악질 반통일대결분자인 현인택을 통일부장관자리에서 빼고 그 무슨 《대통령통일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온 반공화국대통일정책을 바꿀 의사가 틀림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껏 남조선 현 보수 《정부》의 동족대결정책을 앞장서 집행해온 집요한 반통일대 결방자이다.

통일부 장관의 감託를 쓰고 지금까지 미국의 반공화국책소동에 추종하여 핵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요란하게 떠들어댄 것도 현인택이고 북남관계의 길목을 가로타고 앉아 대화와 협력을 암략하게 가로막아온 것도, 인도적 문제를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면서 제일 못되게 장난질을 해온 것도 현인택이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에 대해 시비질하면서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것은 나무에 올라 고기를 염려하는 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맘발한 자도 현인택이다. 악명높

# 내외여론에 대한 우통

은 반공화국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도 바로 현인택의 고언이다.

현인택이 《북은 선량한 이웃이 아니》라느니, 《북과 대명천지에 같이 살수 없다》느니 하는 맘언을 공공연히 들어놓고 북을 《함께 살아갈 동족으로만 생활해서는 안된다》, 《대결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결을 고취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인택은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었으나 불구하고 언제 한번 6.15공동선언발표 기념행사를 주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이 조직한 기념행사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통일운동단체들이 북과 6.15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마저 암락하게 가로막아나섰다. 그런가 하면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전술적변화》, 《진정성결여》라고 헐뜯었으며 《원칙고수》의 미명하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접두들을 모조리 파탄시켰다.

그런데 지금껏 북남대화를 거부하고 그 무슨 《원칙고수》와 술한 《전체조건》으로 북남관계에 이중, 삼중의 난관만을 조성해온 남조선당

남협력사업의 《육동자》로 불리우며 10년 동안 온 민족의 기쁨속에 진행되어온 금강산관광사업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

사실들이 이러한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이 현인택을 《대통령통일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동족대결정책을 끌고자 고집하겠다는 것으로서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통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다.

《대통령통일정책특별보좌관》이 남조선집권자의 《대북정책》에 《조언》을 주는 《기잡이역할》을 하게 될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서 이제 현인택이 《대통령》의 입을 빌어 통일부의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며 사대질을 할것도 뻔하다.

최근 조선반도정세는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흐름을 탔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 같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껏 북남대화를 거부하고 그 무슨 《원칙고수》와 술한 《전체조건》으로 북남관계에 이중, 삼중의 난관만을 조성해온 남조선당

국이 속이 뻗히 들여다보이는 개각돌음으로 내외여론을 우통하면서 대결의 궤도를

이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시종 대결만을 추구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밝은 세상에서 남조선당국의 권모술수는 더이상 통할수 없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부내에서도 《현인택이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청와대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점은 〈대북원칙〉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의 교체가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평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현인택과 같은 인간쓰레기, 악질반통일분자를 계속 끼고돌면서 눈감고 아웅하지만 반통일대결 《정권》으로서의 흥악한 정체는 결코 감출수 없다.

남조선의 《실용정부》가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현인택과 같은 반통일대결분자를 〈특별보좌관〉으로 둘려놓힐것이 아니라 《정권》의 자리에서 완전체명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윤현주

력우를 위해서는 인민들의 혈세를 마구 향진하는 너절한 정치협착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치사한 간상배무리라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김장호

온세훈이 시장직에서 물려남으로써 10월 26일 서울시의 주민들은 최소한 300억 원이상의 예산이 드는 《서울시 장재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그 예산이라는 것 역시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시 장재보궐선거》는 가뜩이나 어려운 인민들의 부담 만 더해줄뿐이다.

보수집권세력이 집권욕에 물젖어 정치적인 기울음을 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많은 자금과 시간을 량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난에 끌려가며 비판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주민투표는 현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생활이야 어떻게 되든 저들의 정치적 마慵과 권

계를 짓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경찰과 대체로 주민들이 예상한 대로 4.3사태가 재현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남조선군부당국은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친는 한편 제주도를 미국의 아시아제례전략실험의 전초기지로 내맡기려는데로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시 장재보궐선거》는 가뜩이나 어려운 인민들의 부담 만 더해줄뿐이다.

보수집권세력이 집권욕에 물젖어 정치적인 기울음을 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많은 자금과 시간을 량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난에 끌려가며 비판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그에 대한 대표적 실

례이다. 과거 청산은 시대의 요구로 보나,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의 엄중성으로 보나, 지체시킬수 없는 절박한 혁사적 과제이다. 과거죄파를 목

으로 공인된 A급전범자들을

《전범자가 아니》라고 부정

한 것은 그에 대한 대표적 실

례이다.

과거청산은 시대의 요구로

보나,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의 엄중성으로 보나, 지

체시킬수 없는 절박한 혁사

적 과제이다. 과거죄파를 목

으로 두고 남조선의 한 언

론은 《4.3사건 당시 뮤지

에서 온 〈서북청년단〉 강

폐와 경찰, 그리고 토벌군

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이 살

상당하는 아픔을 겪은 제주도, 그 아픔이 채 가기도

전에 다시 토지경쟁이 강정

마을을 강경 진압하겠다고

제주도에 들어왔다》고 폭

로 하면서 《강정마을에서는

남조선에서 반공화국모략국들이 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최근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간첩침투설》이다.

지금 남조선의 공안당국과 정보당국은 공화국이 그 누구를 암살하기 위해 《암살조를 파견》하였다느니, 《특수부대원 침투》니 하며 반공화국모략전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안당국은 통일연론자인 《민족 21》을 《간첩단사건》과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해 잠자리에 티장을 풀어놓고 있다.

그들은 지금 남조선사회전반에 《북의 간첩》

이 수많이 침투해 있다고 고아대면서 《간첩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올린다》, 《수사인력은 배로 늘었다》.

물론 이것이 남조선인민들속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는 한편 사회전반에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여 심각한 통치위기를 수습하는데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공안당국은 《간첩단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로동계와 정계, 학계의 인사들이

것이 분석가들의 일치한 평이다.

결국 《간첩단사건》이라는 것이 남조선당국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날조해낸 또 하나의 서풀짜리 모략국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남조선당국이 고안해낸 것이 《남파간첩설》이라는 것과 하나의 모략전인 것이다.

그들은 지금 남조선사회전반에 《북의 남파한 간첩》들이 들키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여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그를 통해 반공화국모략국인 《간첩단사건》에 신빙성을 부여하려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의 거짓을 조작하기 위해 새로운 거짓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레대로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권력유지와 통치위기수습을 위해 별의별 《친북간첩단사건》을 출줄이 꾸며냈지만 그것이 전부 허위모략국이라는 것 자체에 드러났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내놓고 있는 《간첩침투》설이나 《간첩단사건》도 결코 예외로 될수 없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며 그로 하여 차례질 것은 남조선당국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오승철

## 주민투표과정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는 《무상급식제》 도입 문제와 관련한 주민투표가 있었다.

주민투표는 해당 투표율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하여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한 채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알려진 것처럼 《무상급식제》 도입 문제는 지난해 6월에 있는 《지방자치체선거》 과정에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기되었다.

그후 이 문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상반되는 이해관계와 립장차이로 하여 여야간의 첨예한 문제로 되었다.

이러한 속에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이 파란수를 차지한 《서울시민의회》가 초등학교들에서 《전면무상급식제》 도입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한나라당》 소속인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에 반발해

《시의회》의 출석을 보이코트하고 시장직사퇴까지 거론하며 《부분무상급식제》 도입에 대한 서울시민주투표를 하자고 들고나왔다.

이리하여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제》 도입 문제를 판결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현 보수집권세력이 주민투표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헛기여해온다. 예상대로 북부자투표율은 60%에 육박하는 등 보수집권세력은 어려운 주민투표에서 이겨내고 있다.

주민투표가 무효로 됨으로써 180억 원이라는 민주당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많은 투표율이 30%이상을 넘지 못할 것이다.

여당에서 조조 《이번 주민투표발의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끝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하지만 보수집권세력은 어

려보내는 《한나라당》을

통과시작된다.

가리켜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혈세 랑비정당》이라고 저주하고 있다.

오세훈이 시장직에서 물려남으로써 10월 26일 서울시의 주민들은 최소한 300억 원이상의 예산이 드는 《서울시 장재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그 예산이라는 것 역시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시 장재보궐선거》는 가뜩이나 어려운 인민들의 부담 만 더해줄뿐이다.

보수집권세력이 집권욕에 물젖어 정치적인 기울음을 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많은 자금과 시간을 량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난에 끌려가며 비판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주민투표는 현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생활이야 어떻게 되든 저들의 정치적 마慵과 권

계를 짓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경찰과 대체로 주민들이 예상한 대로 4.3사태가 재현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남조선군부당국은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친는 한편 제주도를 미국의 아시아제례전략실험의 전초기지로 내맡기려는데로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시 장재보궐선거》는 가뜩이나 어려운 인민들의 부담 만 더해줄뿐이다.

보수집권세력이 집권욕에 물젖어 정치적인 기울음을 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많은 자금과 시간을 량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난에 끌려가며 비판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그에 대한 대표적 실

례이다. 과거청산은 시대의 요구로 보나,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의 엄중성으로 보나, 지

체시킬수 없는 절박한 혁사적 과제이다. 과거죄파를 목

으로 공인된 A급전범자들을

《전범자가 아니》라고 부정

한 것은 그에 대한 대표적 실

례이다.

과거청산은 시대의 요구로

보나,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의 엄중성으로 보나, 지

체시킬수 없는 절박한 혁사

적 과제이다. 과거죄파를 목

으로 두고 남조선의 한 언

론은 《4.3사건 당시

## 성황을 이룬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온 나라의 씨름전문가들과 씨름애호가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제9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기가 진행되는 기간 풍치수련한 대동강의 둘레도 씨름경기장은 화려한 민족의상을 멀찌감치 씨름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경기 시작전부터 지난 기간의 씨름경기들과 개별적 선수



『침구경험방』은 1644년에 편찬된 우리 나라 최초의 침구학전문서적이다.

저자인 허임은 일찌기 의술에 뜻을 두고 의학공부 특히 침구술에 전심함으로써

### 우리 나라 최초의 침구학전문서적

각론에서는 우리 나라 의학의 독특한 체계에 따라 머리에서 가슴, 배, 다리로 내려가면서 매 부위와 장기들에 생기는 병들의 원인과 증상, 침구치료법들을 간단명료하게 서술했고 또 계통별로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침구치료법을 편람식으로 묶어놓음으로써 림상치료에 적용하기 편리하게 하였다.

우리 민족

상식

방언과 사투리

본사기자

『침구경험방』은 70여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론부분에서는 림상치료에서 잘못 잡을 수 있는 침혈의 위치와 여러 가지 병의 증상, 그것이 5정6부 및 경락과 관련된 관계, 12경맥에 속하는 혈관들 가운데서 병치료에 많이 쓰이는 침혈 138개의 위치와 작용, 침, 뜸을

놓는 방법 그리고 침, 뜸치료의 일반적 적용증과 금기증, 침혈을 잡는 방법, 57개의 경외침혈, 침구치료의 원리 등에 대하여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침구경험방』은 우리 나라 침구학의 첫 전문서적으로서 침구학의 기초리를 우수한 치료경험을 종합하여 만든 귀중한 고려의 학책의 하나이며 당시 우리 나라 고려의 학제적 침구학발전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이후시기 침구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허성철

첫아와 회혼식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축수서명된 명풍은 『만인병』이라고 불렸다.

우리 선조들의 결혼풍속에는 신랑, 신부가 술을 담아 마시며 백년해로를 약속했던 표주박을 신방의 청정우에 매여 두고 평생동안 사랑과 금음을 『보증』하고 『감시』하게 하는 관례도 있었다.

회혼례 때로부터는 60년전에 다시 술을 담아 마시였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는 랑만적이며 아름다운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본사기자

그것을 보는 요시꼬의 눈에서 뜰랑 눈물이 굴러내린다.

비는 어느덧 멎고 바람에 옷을 꾹꾹두 말라간다.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 그의 걸음을 음식점으로 이끈다.

지침집이다. 치직치직 기름하는 고소한 냄새가 못견디게 창자를 허빈다. 주인은 비를 맞아 불풀없는 절름발이소녀를 열핏 훑겨보고는 못 본체 하며 『아합!』 하품을 한다. 파리체로 파리를 쫓는데 열중하는 것 같던 주인이 별안간 반색하며 넉넉이 말해준다. 아이를 업고 꽂양 산을 든 젊은 엄마가 구슬장식이 반짝반짝하는 지갑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던 한아이가 앞질러 땀바질해오다가 무엇에 걸쳐여 넘어졌다.

어머니는 큰일이나 난듯 황급히 달려오더니 물묻은 옷자락을 헤어주며 어디 다른 친구는 없나 하여 무릎이 멈춰버렸다. 하루를 호호 불어 준다.

울상이 됐던 아이는 『해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대황소의 주인공을 뽑는 비교씨름경기였다.

이미 각 도 선발경기들에서 우승한 10여명의 한다하는 씨름장사들이 모여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한 비교씨름경기는 시작부터 치렬하게 진행되었다.

경기에서 출전한 모든 선수들은 평시에 런마해온 씨름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선수들이 재치있는 수법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며

통쾌한 경기장면을 펼칠 때마다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고 경기장이 떠나가도록 열광적으로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파연 누가 대황소의 주인으로 되겠는가?

경기 마감날인 8월 26일, 드디어 그 주인공이 결정되었다.

만사람의 기대와 이목을 한데 모으며 시종 치열하게 진행된 비교씨름은 최종결승경기에서 평안북도의 리조원선수가 영예의 1등을 차지하였다.

이밖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들과 선수들이 상장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한 씨름왕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몸무게급별 씨름경기에 서는 평안북도가 단체종합 1등을 하였다. 2등은 평양시단체가, 3등은 함경남도단체가 하였다.

경기가 끝난 후에 있은 폐막식에서는 비교씨름경기에서 1등, 련속 3연승을 한 평안북도의 리조원선수가 금소방울, 상장이 수여되었다.

본사기자

민족경기에서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수많은 관중들의

본사기자

본사기자